

복합외상경험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고통감내력과 삶의 의미의 조절된 매개효과*

석혜숙

경성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졸업

이수진[†]

경성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에 취약한 성인의 복합외상경험과 자살사고의 관계를 고통감내력 부족이 매개하고, 그 경로에서 고통감내력과 자살사고의 관계를 삶의 의미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정신건강 복지기관 및 센터를 이용하는 성인 251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검사를 통해 복합외상경험, 자살사고, 고통감내력, 삶의 의미를 측정하였다.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진단 여부, 복합외상경험, 자살사고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 추후 분석에서 성별, 나이, 진단여부를 통제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편상관분석 결과, 복합외상경험과 자살사고, 고통감내력 부족, 자살사고와 고통감내력은 서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삶의 의미와 복합외상경험, 자살사고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복합외상경험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고통감내력 부족이 매개하였고, 그 관계에서 삶의 의미는 고통감내력 부족과 상호작용하여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효과를 가졌다. 이 결과로 복합외상경험을 한 성인의 삶의 의미 증진을 통해 자살사고에 개입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주요어 : 복합외상경험, 자살사고, 고통감내력, 삶의 의미

* 본 연구는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2024에서 'Influence of Traumatic Experiences on Suicide through meaning in life and distress tolerance'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포스터를 수정, 보완한 것임.

본 연구는 진주영(경성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졸업)이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수진 / 경성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 (48434) 부산 남구 수영로 309 /

Tel: 051-663-4328 / E-mail: leesooj@ks.ac.kr

 Copyright ©2025,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자살은 개인이 시행하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정의되며, 자살사고, 자살계획, 자살시도와 자살로 인한 사망에 이르는 연속적인 행동이다(Beck et al., 1979; Harwood & Jacoby, 2000). 자살은 한국의 대표적 사회문제로 손꼽히는 현상으로, 2022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인구 10만명 당 25.2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2). 이는 OECD 국가의 2022년 평균 11.1명과 비교할 때, 두 배 이상이나 되는 수치이다(박수진, 2023). 경찰청의 변사자통계에 따르면 2022년 자살 원인의 39.4%는 정신과적 문제로 1위로 꼽히고 있다(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2). 자살을 실행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살사고를 들 수 있는데(서장원, 2019), 자살사고는 되돌리기 힘든 자살행동에 비해 사전개입을 통해 조절이 가능한 변인이기 때문에(Szanto et al., 2002) 자살을 예방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살을 예측하는 변인은 다양하나, 특히 복합외상은 자살사고를 높이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Green et al., 2005). 복합외상은 장기간에 걸쳐 다중적으로 경험한 대인외상을 의미하며(Luxenberg et al., 2001), 아동폭력피해나 가정폭력과 같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대인적 폭력의 성격을 띠는 외상을 의미한다(안현의, 2007). 복합외상은 성인기까지 이어지면서 심리적 증상과 대인관계, 학교생활, 사회적 적응 등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기존에 알려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와는 다르게, 복합외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PTSD는 대인관계와 관련된 외상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기존의 PTSD로 설명하기 어려운 증상들을 보인다. 복합외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PTSD의 증

상으로는 국제질병분류의 PTSD의 진단기준으로 제시된 과각성, 재경험, 회피 외에도 대인관계의 어려움, 정서조절 곤란, 지속되는 부정적 자기개념을 포함하고 있다(Brewin, 2020; Maercker et al., 2022). 특히 복합외상은 발달적 외상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대인적 폭력을 경험한 연령이 어릴수록 더 심각한 수준의 복합 PTSD로 나타나(Van der Kolk et al., 2005), 복합 PTSD에서 아동기 외상을 다루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복합외상이 자살로 이어지는 관계는 장기적 스트레스 모델(long-term stress model; Jacobson, 1971)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장기적 스트레스 모델에서는 갑작스러운 충동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보다는 복합외상과 같이 오랫동안 지속된 개인적 또는 가족 내 갈등이나 문제로 인해 심리적인 고통을 받으면 자살을 시도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경험적으로도 입증되었는데, 복합외상경험이 많을수록 자살사고와 자살시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으며(김보라, 2012; 이정미, 2017; Belik et al., 2007; Sarchiapone et al., 2009; Spikol et al., 2022), 특히 아동기 외상을 겪은 사람들은 정서 조절에 곤란을 겪으며, 그 결과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자살사고를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Su & Stone, 2020). 즉 아동기 외상은 자살사고와 관련 있으며(Laghaei et al., 2023; Yildiz et al., 2023),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 및 성적학대와 관련된 외상경험이 자살사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Nilsen & Conner, 2002; Yang & Clum, 2000).

아동기 학대와 성인기의 정신병리의 관계에서 잠재적인 매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변인으로 고통감내력이 있다(Leyro et al., 2011). 고통감내력은 고통과 감내력의 두 요소로 구

성되는데, 고통은 부정적 경험을 수반하는 스트레스이며 감내력은 불쾌한 경험에 머물며 견디어 내는 것으로 정의된다(서장원, 권석만, 2015). 즉 고통감내력은 부정적 심리 상태를 경험하고 견디어내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Simons & Gaher, 2005). 고통감내력이 부족한 사람은 부정적 심리 상태를 경험했을 때 그 경험을 해롭고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고통의 경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아동기 외상 경험이 고통을 감내하는 대처능력을 키우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낮은 고통감내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Briere & Elliot, 2003), 아동기 외상 경험을 한 사람들은 부정 정서를 더욱 강렬하게 경험하여 고통감내력이 감소할 수 있다(송승아, 2019). 고통감내력은 외상 사건을 경험한 후의 회복에 대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상 후의 정신건강을 예측할 수 있다(Cook et al., 2005; Robinson et al., 2021). 더하여 고통감내력은 자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nestis & Joiner, 2012). 즉 고통 감내력이 부족한 환자들이 자살 행동과 자살에 의한 사망 비율이 높고(서장원, 2019; Linehan, 1993), 고통감내력이 부족할수록 자살사고를 많이 경험하며(김희라, 2019), 고통감내력 수준에 따라 자살사고의 수준이 달라지기도 하였다(조용상, 2018; Kyron et al., 2022). 또한 외상 경험이 고통감내력을 통해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Bartlett et al., 2021; Kratovic et al., 2020). 이를 통해, 복합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고통을 견디어내는 능력이 쉽게 부족해지기 때문에 정서적 고통에 대한 대처가 어렵고, 이를 끝내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자살사고를 더 많이 경험하다고 추측할 수 있다(Kratovic et al., 2020).

한편 자살은 조기개입을 통해 예방할 수밖에 없는데, 자살을 예방할 목적으로 자살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복합외상경험과 고통감내력의 역할과 함께 보호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삶의 의미는 자신의 삶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느낌으로 이해될 수 있다(Schulenberg et al., 2016). Steger(2005)는 삶의 의미를 ‘의미 발견(the presence of meaning)’과 ‘의미 추구(the search for meaning)’의 두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삶의 의미 추구는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개인이 지향하는 열망과 동기이며, 의미 발견은 자신의 삶이 실제로 의미가 있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느낌을 의미한다. 삶의 의미는 자살을 보다 잘 예방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Heisel & Flett, 2004). 선행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와 생의 이유는 자살예방의 주요한 예측인자이자 자살사고 및 행동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고(Wang et al., 2007), 삶을 유지하려는 이유가 많으면 자살사고가 더 적어진다고 보고되었다(Linchan et al., 1983). 또한 삶의 의미는 복합외상경험과도 관련될 수 있는데, 삶의 의미가 높은 사람은 외상을 경험한 후 외상 증상의 수준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Mutuyimana & Maercker, 2024), 삶의 의미가 외상 후 성장을 통해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전지경, 2017).

특히 삶의 의미는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삶의 부분으로 인식해 학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Steger et al., 2006). 개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대인관계적, 상황적 위기의 부정적 영향을 삶의 의미가 완화시키고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살사고로부터 벗

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Heisel & Flett, 2016), 자살이나 스트레스 등에 대해 보호요인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었다(김신연, 채규만, 2013; 김현지, 권정혜, 2012; 손슬기, 2014; 조하, 신희천, 2009).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고통을 감내하는 능력이 낮은 개인도 삶의 의미를 통해서 고통을 재해석하고 고통으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심리상태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복합외상경험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가 조절효과를 보였는데(김보라, 2012), 복합외상을 경험했을 지라도 삶의 의미가 높다면 자살사고를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괴롭힘 피해와 자살사고의 관계를 삶의 의미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enry et al., 2014). 더하여 고통 감내력과 삶의 의미의 수준에 따라서 외상경험이 외상후 성장으로 이어지는 정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Aliche & Idemudia, 2024). 다른 연구에서도 입원 환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심각도와 자살 욕구의 심각도 사이에서 고통감내력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Vujanovic et al., 2017).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하였을 때, 복합외상경험이 자살사고를 예측하는 경로에서 고통감내력의 매개효과와 보호요인으로서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를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복합외상경험과 자살사고, 고통감내력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가 어떠한 조절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모두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건강에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합외상경험, 고통감내력, 삶의 의미, 자살사고의 관계를 살펴보고, 고통감내력과 삶의 의미를 통해 복합외상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자살사고에 개입할 수 있는 기초

토대를 쌓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복합외상경험과 고통감내력 부족,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가 조절된 매개효과를 갖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경상도 지방의 지역사회 정신건강 복지기관 및 센터를 이용하는 성인 251명으로, 자료 수집은 온라인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은 남성 119명(47.4%), 여성 132명(52.6%)으로 나타났고, 거주지는 울산광역시 106명(42.2%), 부산광역시 47명(10.7%), 경상남도 42명(16.7%), 경상북도 35명(13.9%), 대구광역시 20명(8.0%), 기타 1명(0.4%)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성대학교 기관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KSU-22-05-002-0816)을 받아 진행되었다.

측정도구

외상경험 척도(Trauma Antecedents Questionnaire [TAQ])

아동기 및 청소년 외상 경험을 평가하기 위해 Van der Kolk 외(1996)가 개발한 외상 경험 척도를 고나래(2008)가 번안 및 수정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0가지 영역에 걸쳐 생애 사건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생애 사건에서 외상이 될 수 있는 충격적인 10가지 사건이 요인으로 이루어져있다. 본 연구에서는 10가지 요인 중 복합외상에 포

합되는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및 방임에 대한 15문항을 사용하였다. 1점(전혀 없었다)에서 4점(자주 있었다)의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할 수 있으며, 총점의 범위는 최소 15점에서 최대 60점에 분포할 수 있고, 본 연구에서는 최소 15점에서 최대 50점으로 나타났다. 본 점수가 높을수록 복합외상경험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김보라(2012)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한국판 Beck 자살생각척도(Scale for Suicidal Ideation [SSI])

연구 대상자의 자살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Beck 외(1979)가 개발하고 신민섭 외(1990)가 번안한 한국판 Beck 자살생각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9개 문항을 0점에서 2점까지 Likert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38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자살사고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소 0점에서 최대 33점의 범위로 나타났다. 신민섭 외(1990)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7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6으로 나타났다.

고통감내력 척도(Distress Tolerance Scale [DTS])

부정 정서에 대한 감내력을 측정하기 위해 Simons와 Gaher(2005)가 개발하고 박성아(2010)가 타당화한 15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15점에서 7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고통에 대한 감내력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소 15점에서 최대 70

점으로 나타났다. 손승희(2018)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삶의 의미 척도(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MLQ])

삶의 의미를 측정하기 위해 Steger 외(2006)가 개발하고, 원두리 외(2005)가 번안 및 타당화한 삶의 의미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점(전혀 아니다)에서 7점(매우 그렇다)의 7점 Likert 척도로 평정할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의미가 높음을 의미한다. 점수의 범위는 10점에서 70점으로, 본 연구에서도 같은 범위에 분포하였다. 원두리 외(2005)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IBM SPS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연구대상자의 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와 기술통계치를 확인하였고,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과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복합외상경험이 자살사고로 가는 경로에서 고통감내력 부족의 매개효과와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22)가 제안한 PROCES macro(v4.2)의 Model 14를 사용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하였으며, 조절변인의 수준을 나누어($M, M \pm 1SD$) 간접효

과의 크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결 과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특성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성별에 따른 측정 변인들의 특성을 표 1에 나타내었다. 성별에 따른 나이와 진단 여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 참여자의 나이는 만 19-20세가 가장 많았고($n = 104$), 만 30세에서 39세가 두번째로 많은 나이대로 나타났다($n = 102$). 진단을 받은 사람과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은 각각 127명, 124명으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성별에 따라서

진단 여부의 차이가 있었다($\chi^2 [1, N = 251] = 16.80, p < .001$).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복합외상경험($t [249] = -6.24, p < .01$)과 자살사고($t [248.03] = -3.08, p < .01$)가 성별에 따라 점수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 외에도 나이 및 진단 등이 자살사고, 삶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를 고려하여(김상희, 박성현, 2017; 정진성, 심희섭, 2024), 본 분석에서는 성별, 나이, 진단 여부를 통제하였다.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와 기술통계

성별, 나이, 진단 여부를 통제한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와 기술통계량을 표 2에 제시하였

표 1.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N = 251)

		남		여		전체		χ^2
		<i>n</i>	%	<i>n</i>	%	<i>n</i>	%	
나이	만 19-29세	42	35.8	62	47.0	104	41.4	8.57
	만 30-39세	51	42.9	51	38.6	102	40.6	
	만 40-49세	15	12.6	9	6.8	24	9.6	
	만 50-59세	8	6.7	3	2.3	11	4.4	
	만 60세 이상	3	2.5	7	5.3	10	4.0	
진단 여부	진단 받음	44	37.0	83	62.9	127	50.6	16.80***
	진단 받지 않음	75	63.0	49	37.1	124	49.4	
		<i>M</i>	<i>SD</i>	<i>M</i>	<i>SD</i>	<i>M</i>	<i>SD</i>	t
	복합 외상경험	23.47	7.45	26.14	8.47	24.88	8.10	-2.64**
	자살사고	5.93	8.25	9.43	9.75	7.77	9.22	-3.08**
	고통감내력 부족	40.54	14.29	43.65	13.70	42.18	14.04	-1.76
	삶의 의미	48.48	12.09	47.37	12.74	47.90	12.43	0.71

주. 남성(N = 119); 여성(N = 132).

** $p < .01$. *** $p < .001$

표 2. 성별, 나이, 진단 여부를 통제한 편상관분석

(*N* = 251)

	복합외상경험	자살사고	고통감내력 부족	삶의 의미
복합외상경험	-			
자살사고	.52***	-		
고통감내력 부족	.33***	.23***	-	
삶의 의미	-.48***	-.62***	-.07	-
<i>M</i>	24.88	7.77	42.18	47.90
<i>SD</i>	8.10	9.22	14.04	12.43
왜도	0.52	0.86	-0.14	-0.59
첨도	-0.69	-0.63	-0.88	-0.40

*** *p* < .001

다. 그 결과, 고통감내력 부족과 삶의 의미 간 상관관계를 제외하고($r = -.07, ns$) 모든 변인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외상경험은 자살사고($r = .52, p < .001$), 고통감내력 부족($r = .33, p < .001$)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자살사고는 고통감내력 부족($r = .23, p < .001$)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삶의 의미는 복합외상경험($r = -.48, p < .001$), 자살사고($r = -.62, p < .001$)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주요 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을 때, 왜도의 절댓값이 2미만, 첨도의 절댓값이 7 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을 충족하였다.

복합외상경험과 고통감내력 부족,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조절된 매개효과

복합외상경험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의 매개효과에서 삶의 의미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Hayes (2022)의 process macro의 model 14번을 사용하였다. 모든 변수에 평균중심화를 적용하였고,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복합외상경험은 유의하게 고통감내력 부족($b = 0.57, p < .001$)과 자살사고($b = 0.25, 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고통감내력 부족은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b = 0.11, p < .001$),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통감내력 부족과 삶의 의미의 상호작용항이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b = -0.01, p < .001$), 고통감내력과 자살사고의 경로에서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복합외상경험이 고통감내력 부족을 거쳐 자살사고로 가는 간접효과에서 삶의 의미가 영향을 미치는 조절효과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조절변인의 수준을 낮음($M - 1SD$), 중간(M), 높음($M + 1SD$)로 나누고 부트스트래핑 절차를 거쳐 각 수준별 조건부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표 4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조건부 간접효과는 삶의 의미가 낮은 수준일 때($b = 0.24, 95\% CI [0.16, 0.33]$)와 중간 수준일 때($b = 0.11, 95\% CI [0.05, 0.19]$)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하였고, 삶의 의미가 높은 수준일 때는 유의하

표 3.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

	종속변수: 고통감내력 부족				
	<i>b</i>	<i>SE</i>	<i>t</i>	<i>LLCI</i>	<i>ULCI</i>
복합외상경험	0.57	0.11	5.39***	0.36	0.78
나이	1.04	0.77	1.34	-0.49	2.56
성별	0.03	1.63	0.02	-3.18	3.24
진단 여부	6.74	1.74	3.87***	3.31	10.18
	종속변수: 자살사고				
	<i>b</i>	<i>SE</i>	<i>t</i>	<i>LLCI</i>	<i>ULCI</i>
복합외상경험	0.25	0.06	4.31***	0.13	0.36
고통감내력 부족(A)	0.11	0.03	3.78***	0.05	0.17
삶의 의미(B)	-0.31	0.03	-9.18***	-0.38	-0.24
A × B	-0.01	0.002	-5.60***	-0.01 ^a	-0.01 ^a
나이	1.34	0.35	3.82***	0.65	2.03
성별	1.45	0.73	1.97*	0.002	2.89
진단 여부	3.98	0.81	4.90***	2.38	5.58

^a 주. 이들의 실제 값은 -0.014--0.007로 나타남

* $p < .05$. *** $p < .001$

표 4. 조절된 매개효과의 부트스트래핑 분석

삶의 의미	<i>b</i>	Boot <i>SE</i>	Boot <i>LLCI</i>	Boot <i>ULCI</i>
<i>M</i> - 1 <i>SD</i>	0.24	0.04	0.16	0.33
<i>M</i>	0.11	0.03	0.05	0.19
<i>M</i> + 1 <i>SD</i>	-0.02	0.03	-0.08	0.05

주. 매개변수: 고통감내력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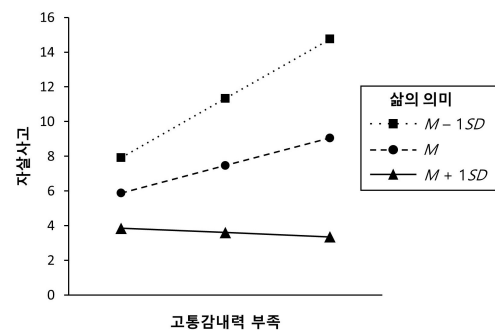


그림 1. 복합외상경험과 고통감내력 부족,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조절된 매개효과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 = -0.02$, 95% CI [-0.08, 0.05]). 즉, 삶의 의미가 낮거나 평균 수준일 경우에는 고통감내력 부족이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삶의 의미가 높을 경우 고통감내력 부족이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 양상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정신건강에 취약한 사람들의 자살사고를 이해하기 위해 복합외상, 고통감내력과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복합외상경험은 자살사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고, 고통감내력 또한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되었으나 이들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더하여, 자살사고의 보호요인으로써 삶의 의미가 미치는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예방적 차원에서 삶의 의미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복합외상경험과 자살사고의 관계를 고통감내력 부족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고, 고통감내력부족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가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복합외상경험, 고통감내력 부족과 자살사고의 관계가 삶의 의미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진단을 받았는지의 여부와 복합외상경험, 자살사고에서 성별 간 차이를 알아보았을 때,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진단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더 높았고, 복합외상경험도 더 많이 하였으며, 자살사고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복합외상경험을 한 성인들의 자살사고를 파악할 때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어리고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PTSD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Brewin et al., 2000; Frazier et al., 2009). 또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외상 사건을 보고하며(서영석 등, 2012), PTSD의 진단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남보라 등, 2010; Tolin & Foa, 2008). 이러한 결과는 관계 중심적 성향이 강하고 신체적으로 더 취약한 여성이 외상 사건을 경험할 때 남성에 비해 자살사고와 같은 심리적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나이, 진단 여부를 통제하였으며, 추후 연구에서는 성별과 나이, 진단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복합외상경험과 고통감내력 부족, 자살사고, 삶의 의미 간 상관을 확인하였다. 우선 복합외상경험은 자살사고, 고통감내력 부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복합외상경험은 자살사고, 고통감내력 부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아동기 외상이 자살사고와 정적상관을 보인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김민정, 2013; 안위능, 2024; 최성원, 2024). 또한 복합외상경험과 고통감내력 부족의 관계를 중학생, 대학생,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상관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도 정적 관련성이 나타났다(류에스더, 2019; 손승희, 2018; 조가영, 조민아, 2018). 즉, 정서적 외상이 많을수록 고통감내력 부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고통감내력 부족이 상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복합외상경험은 삶의 의미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Jensen 외(2000)의 연구에서, 삶의 의미가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사건을 보다 낙관적 태도를 갖고 좋은 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자 삶의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서 고려하며, 스트레스 사건이 자신의 삶을 좌우할 사건으로 지각하지 않도록 재구성한다고 보았다. 또한, 최명

심과 손정락(2007)의 연구에서,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본인의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하여 대처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복합외상경험과 삶의 의미의 부적 관련성은 이러한 선행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자살사고는 고통감내력 부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삶의 의미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 결과는 외상을 경험하거나 고통감내력이 낮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자살사고를 경험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며(김희라, 2019; Laghaei et al., 2023), 외상 수준과 자살사고가 삶의 의미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된 선행연구와 일관되는 결과이다(Edwards & Holden, 2001; Li et al., 2021; Mutuyimana & Maercker, 2024).

셋째, 복합외상경험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 부족을 매개로 삶의 의미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우선 복합외상경험과 고통감내력 부족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복합외상경험이 자살사고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는 대인간 외상 경험이 자살사고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이다(LeBouthillier et al., 2015; Stein et al., 2010). 또한 아동기 외상이 복합외상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보았을 때(Herman, 1992),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더 많은 자살사고를 경험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Laghaei et al., 2023; Yıldız et al., 2023). 이를 통해 복합외상경험이 있는 사람들, 즉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대인외상이나 아동기 외상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이 더 쉽게 자살에 대해 생

각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복합외상경험이 고통감내력으로 가는 경로 또한 유의하였는데, 이는 복합외상경험이 고통감내력을 저하시킨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를 지지한다(이정미, 2017; Spikol et al., 2022). 고통감내력은 고통 안에 머물면서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견디어 낼 수 있는 능력인데, 반복되는 고통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이를 피하기 위해 부정적인 심리적 경험을 피하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이해된다. 이것은 외상경험을 겪은 사람들은 상황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져 고통감내력이 낮아진다고 주장하는 인지적 평가모델(cognitive appraisal model)에 부합된다(Clen et al., 2011). 즉,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정서경험에 대해 위협적으로 평가하고, 부정적인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의지가 낮아지면서 심리적 어려움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다(이지영, 정지현, 2016; Clen et al., 2011). 한편, 고통감내력 부족이 자살사고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고통감내력이 부족할수록 자살사고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자살에 취약하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김희라, 2019; 서장원, 2019). 특히 복합외상경험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복합외상경험이 많을수록 고통감내력 부족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고통감내력 부족이 자살사고에 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합외상경험이 고통감내력을 거쳐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주요우울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고통감내력이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줄어드는 경향이 보고되었는데(Kratovic et al., 2020; Zhong et al., 2023),

이는 스트레스 요인이 자살위험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고통감내력이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살행동에 대한 대인관계-심리학적 이론(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al behavior [IPTS]; Joiner, 2005)에 따르면, 고통감내력이 낮을수록 자살욕구는 높아지게 되며, 이러한 자살욕구는 빈번한 비자살적인 자해행동과 연결되어 결국 반복적인 자살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Paul et al., 2015). 즉, 고통감내력이 낮은 사람들이 갖는 자살시도 등에 대한 취약성은 원하지 않는 정서를 피하거나 벗어나기 위해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사용하는 데서 기인한다 하였으며, 낮은 수준의 고통감내력이 보다 많은 자살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Anestis & Joiner, 2012). 향후 복합외상경험으로 인해 자살사고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 결과를 반복검증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넷째, 복합외상경험이 고통감내력 부족을 매개로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삶의 의미의 수준에 따라 고통감내력 부족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의미가 낮거나 평균 수준일 경우에는 고통감내력 부족이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삶의 의미가 높을 경우 고통감내력 부족이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삶의 의미가 낮을수록 복합외상을 경험하였을 때, 고통감내력 부족을 통해 자살사고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으며, 이를 삶의 의미를 통해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삶의 의미는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된 결과와 일맥상통한다(Heisel & Flett, 2004). 예를 들면, 삶의 의

미가 낮은 사람은 자살사고를 경험할 확률이 높으며, 반대로 삶의 의미가 높은 사람은 자살사고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이 보고되었다(Dogra et al., 2011; Lew et al., 2020; Tan et al., 2018). 이는 고통감내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삶의 의미와 가치를 중점으로 한 치료적 개입을 통해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로 Wong의 의미중심 치료와 Hayes의 수용전념치료 등을 들 수 있는데, 복합외상경험을 한 개인의 자살을 예방하는 기초 자료로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겠다(박선영, 권석만, 2012).

한편, 삶의 의미는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으로 구성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의미추구는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동기를 말하며, 의미발견은 실제로 자신의 삶이 의미가 있다는 주관적인 느낌이다(Steger, 2005). 의미추구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의 목표와 중요한 의미에 대하여 이해를 향상하려고 노력하는데(Kashdan et al., 2008), 이러한 노력이 실패한다면 더 큰 심리적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Steger et al., 2006). 또한 여러 연구에서 의미추구가 삶의 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고, 의미발견을 통해 간접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유성경, 김유진, 2015; 정주리, 이기학, 2007; 지은주, 2016). 따라서 삶의 의미를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으로 나누어, 각각 어떻게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지 추후 연구를 통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복합외상경험을 보고한 사람들을 위한 평가 및 치료 현장에서 자살에 대해 민감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복합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고통감내력이 부족하게 되어 자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

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통감내력 부족이 자살사고로 이어지는 영향을 약화시키기 위해 삶의 의미를 보호요인으로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즉 복합외상경험을 한 사람들은 고통을 기꺼이 견뎌내는 능력이 부족해져 이로 인해 자살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고통을 잘 견뎌내지 못하더라도 삶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크게 느끼는 사람들은 자살에 대한 생각을 덜 하게 된다. 따라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기반으로 한 치료적 개입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복합외상경험을 한 성인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고통감내력의 영향을 줄이는 삶의 의미를 함께 고려한다면 복합외상을 경험한 성인을 더 폭넓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절효과가 작용하는 삶의 의미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인하여 삶의 의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삶의 의미를 평균을 기점으로 1표준편차씩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에서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삶의 의미가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복합외상경험이 있는 사람의 자살사고에 개입할 때 삶의 의미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복합외상경험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과 삶의 의미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복합외상경험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 또는 삶의 의미에 각각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두 변인을 모두 포함하여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삶의 의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복합외상경험을 경험하고, 고통감내력이 낮은 경우에도 삶의 의미를 높여주는

치료를 통해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로 Wong의 의미중심치료와 Hayes의 수용전념치료 등을 들 수 있는데(박선영, 권석만, 2012), 복합외상경험을 한 개인의 자살을 예방하는 기초 자료로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겠다(박선영, 권석만, 2012).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아래와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진단의 여부와 복합외상경험, 자살사고의 점수 차이가 존재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제하였다. 복합외상경험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과 삶의 의미의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성별의 통제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라 조절된 매개효과의 양상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삶의 의미에는 의미 추구와 의미 발견의 두 가지 하위변인이 있음에도, 본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라는 하나의 변인으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의미 추구와 의미 발견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다르게 보고되었고(홍주안, 권호인, 2018; Dogra et al., 2011), 외상이 자살사고로 가는 경로에서도 서로 다른 역할을 보고한 점을 고려할 때(Sinclair et al., 2016),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는 정신건강에 취약한 성인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으므로, 연구대상이 정신건강 복지기관과 센터를 이용하는 성인으로 제한되었다. 또한 진단을 받은 임상군과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심리 문제를 호소하는 준임상군을 함께 분석하였다. 따라서 정신건강 센터를 방문하지 않는 일반 대상에게 일반화

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비임상군과 준임상군, 임상군을 구별하여 비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참고문헌

- 고나래 (2008). 아동, 청소년기 복합외상 경험이 정서조절과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이화여자대학교.
<https://www.riss.kr/link?id=T11209952>
- 김민정 (2013). 외상 사건으로 인한 부적 정서 경험과 자살사고가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효과: 자기노출의 조절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충남대학교.
<https://www.riss.kr/link?id=T13316687>
- 김보라 (2012). 복합외상경험과 자살사고의 관계: 삶의 의미의 중재효과와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중앙대학교.
<https://www.riss.kr/link?id=T12683769>
- 김상희, 박성현 (2017). 연령대별 삶의 의미와 안녕감의 관계: 10대, 20대, 40대 간 의미 추구, 의미발견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1(1), 61-78.
<https://doi.org/10.21193/kjspp.2017.31.1.004>
- 김신연, 채규만 (2013).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 *인간이해*, 34(1), 1-13.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3145267>
- 김현지, 권정혜 (2012). 노인의 삶의 의미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회피적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2), 589-606.
<http://doi.org/10.15842/kjcp.2012.31.2.011>
- 김희라 (2019). 중년의 평가염려와 완벽주의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고통감내력의 조절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https://www.riss.kr/link?id=T15022987>
- 남보라, 권호인, 권정혜 (2010). 한국판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9(1), 147-167.
<http://doi.org/10.15842/kjcp.2010.29.1.009>
- 류에스더 (2019). 아동·청소년기의 외상경험이 경계선 성격 성향에 미치는 영향: 분노반추와 고통감내력의 역할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한양사이버대학교.
<https://www.riss.kr/link?id=T14547194>
- 박선영, 권석만 (2012). 삶의 의미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임상적 함의.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3), 741-76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697072>
- 박성아 (2010).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의 정서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감내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대학교.
<https://www.riss.kr/link?id=T12080641>
- 박수진 (2023.12.01.). [기획1] 대한민국의 자살 문제와 사회적 과제. 참여연대.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953>

- 046
서영석, 조화진, 안하얀, 이정선 (2012). 한국인이 경험한 외상사건: 종류 및 발생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3), 671-701.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688956>
- 서장원 (2019). 자살 실행력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4(3), 587-604. <http://doi.org/10.17315/kjhp.2019.24.3.004>
- 서장원, 권석만 (2015). 고통 감내력과 심리장애: 경험적 연구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2), 397-42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99928>
- 손슬기 (2014). 대학생 생활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 자기 자비의 매개효과 검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이화여자대학교.
<https://www.riss.kr/link?id=T13521969>
- 손승희 (2018). 대학생의 아동기외상이 고통감내력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9(1), 107-119.
<http://doi.org/10.22143/HSS21.9.1.9>
- 송승아 (2019). 생애 초기 애착외상과 경험회피의 관계: 부정정서강도와 고통감내력의 매개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이화여자대학교.
<https://www.riss.kr/link?id=T15329681>
-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1990). 고등학생의 자살 성향에 관한 연구: 우울-절망-자살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1), 1-19.
<https://accesson.kisti.re.kr/main/search/articleDetail.do?artiId=ATN0050378917&searchApiUse=N&reqstSn=>
- 안위능 (2024).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 경험과 자살사고의 관계: 좌절된 소속감, 지각된 짐스러움, 무망감의 매개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북대학교.
<https://www.riss.kr/link?id=T16983998>
- 안현의 (2007). 복합외상(Complex trauma)의 개념과 경험적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1), 105-119.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064443>
- 원두리, 권선중, 김교현 (2005). 한국판 삶의 의미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2), 211-225.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016011>
- 유성경, 김유진 (2015). 삶의 의미추구와 주관적,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의미발견 및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2), 53-75.
<http://doi.org/10.15703/kjc.16.2.201504.53>
- 이정미 (2017). 입대전 복합외상 경험이 군복무 부적응을 통해 자살생각과 탈영생각에 미치는 영향: 병영내 사회적 지지와 삶의 의미의 조절된 매개효과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대구가톨릭대학교.
<https://www.riss.kr/link?id=T14585166>
- 이지영, 정지현 (2016). 부정 정서강도와 적응

- 적 및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4), 719-740.
<http://doi.org/10.17315/kjhp.2016.21.4.003>
- 전지경 (2017). 관계 상실을 경험한 대학생의 삶의 의미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외상 후 성장을 매개효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5(11), 339-349.
<http://doi.org/10.14400/JDC.2017.15.11.339>
- 정주리, 이기학 (2007). 의미발견을 통한 의미추구와 주관적 안녕감의 모형 검증: 문제해결 책임감과 긍정적 재해석을 매개로. *상담학연구*, 8(4), 1309-1321.
<http://doi.org/10.15703/kjc.8.4.200712.1309>
- 정진성, 심희섭 (2024). 자살생각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성별 및 연령대별 비교 검증. *형사정책연구*, 35(3), 67-106.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128976>
- 조가영, 조민아 (2018). 중학생의 정서적 외상과 분노표현양식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과 사회적지지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3), 597-620.
<http://doi.org/10.22251/jlcci.2018.18.23.597>
- 조용상 (2018). 우울과 자살성 간의 관계에서 고통 감내력의 조절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서강대학교.
<https://www.riss.kr/link?id=T15057151>
- 조하, 신희천 (2009).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4), 1011-1026.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391309>
- 지은주 (2016). 중년기 남녀의 삶의 의미추구가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의미발견, 생성감, 영성의 매개효과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대구가톨릭대학교.
<https://www.riss.kr/link?id=T14253225>
- 최명심, 손정락 (2007). 삶의 의미 수준이 자존감, 문제해결 인식도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4), 951-967.
<http://doi.org/10.17315/kjhp.2007.12.4.017>
- 최성원 (2024). 후기청소년의 대인관계 외상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외로움의 병렬다중매개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https://www.riss.kr/link?id=T16928505>
- 통계청 (2022). 2022년 사망원인통계연보.
https://kosis.kr/upsHtml/online.do?isOnline=Y&PART=G&pubcode=YD&isNew=Y&dev=Y#gongDiv_YD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2). 개인 특성별 자살현황. <https://kfsp-datazoom.or.kr/korea02.do>
- 홍주안, 권호인 (2018). 인식된 짐스러움이 노인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삶의 의미와 사회참여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3), 411-428.
<http://doi.org/10.20406/kjcs.2018.8.24.3.411>
- Aliche, C. J., & Idemudia, E. S. (2024). Role of distress tolerance, meaning in life an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PTSS) and posttraumatic growth (PTG) among Nigerian cancer patients. *Journal of Psychology in Africa*, 34(4),

- 367-372.
<https://doi.org/10.1080/14330237.2024.2371718>
- Anestis, M. D., & Joiner, T. E. (2012). Behaviorally-indexed distress tolerance and suicidality.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44*(6), 703-707.
<https://doi.org/10.1016/j.jpsychires.2012.02.015>
- Bartlett, B. A., Lebeaut, A., Zegel, M., Johnson, A., & Vujanovic, A. A. (2021). Childhood maltreatment severity and suicidal ideation among adults receiving acute-care psychiatric inpatient services: The role of distress tolerance.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13*(3), 333-337.
<https://doi.org/10.1037/tra0000663>
- Beck, A. T., Kovacs, M., & Weissman, A. (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2), 343-352.
<https://doi.org/10.1037/0022-006X.47.2.343>
- Belik, S. L., Cox, B. J., Stein, M. B., Asmundson, G. J., & Sareen, J. (2007). Traumatic events and suicidal behavior: Results from a national mental health survey.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5*(4), 342-349.
<http://doi.org/10.1097/01.nmd.0b013e318060a869>
- Brewin, C. R. (2020). Complex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 new diagnosis in ICD-11. *BJPsych Advances, 26*(3), 145-152.
<https://doi.org/10.1192/bja.2019.48>
- Brewin, C. R., Andrews, B., & Valentine, J. D. (2000). Meta-analysis of risk factors f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rauma-exposed adul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8*(5), 748-766.
<https://doi.org/10.1037/0022-006X.68.5.748>
- Briere, J., & Elliott, D. M. (2003). Prevalence and psychological sequelae of self-reported childhood physical and sexual abuse in a general population sample of men and women. *Child Abuse & Neglect, 27*(10), 1205-1222.
<https://doi.org/10.1016/j.chiabu.2003.09.008>
- Clen, S. L., Mennin, D. S., & Fresco, D. M. (2011). Major depressive disorder. In M. J. Zvolensky, A. Bernstein, & A. A. Vujanovic (Eds.), *Distress tolerance: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149-170). The Guilford Press.
<https://psycnet.apa.org/record/2011-04021-007>
- Cook, A., Spinazzola, J., Ford, J., Lanktree, C., Blaustein, M., Cloitre, M., DeRosa, R., Hubbard, R., Kagan, R., Liataud, J., Mallah, K., Olafson, E., & van der Kolk, B. (2005). Complex trauma. *Psychiatric Annals, 35*(5), 390-398.
<https://sites.northwestern.edu/cans/files/2022/08/Complex-trauma-in-children.pdf>
- Dogra, A. K., Basu, S., & Das, S. (2011). Impact of meaning in life and reasons for living to hope and suicidal ideation: A study among college students. *SIS Journal of Projective Psychology & Mental Health, 18*(1), 89-102.
<https://www.proquest.com/scholarly-journals/impact-meaning-life-reasons-living-hope-suicidal/docview/840254955/se-2>
- Edwards, M. J., & Holden, R. R. (2001). Coping, meaning in life, and suicidal manifestations: Examining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 Clinical Psychology*, 57, 1517-1534.
<https://doi.org/10.1002/jclp.1114>
- Frazier, P., Anders, S., Perera, S., Tomich, P., Tennen, H., Park, C., & Tashiro, T. (2009). Traumatic events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Prevalence and associated symptom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6(3), 450-460.
<https://doi.org/10.1037/a0016412>
- Green, B. L., Krupnick, J. L., Stockton, P., Goodman, L., Corcoran, C., & Petty, R. (2005). Effects of adolescent trauma exposure on risky behavior in college women. *Psychiatry: Interpersonal and Biological Processes*, 68(4), 363-378.
<http://doi.org/10.1521/psyc.2005.68.4.363>
- Harwood, D., & Jacoby, R. (2000). Suicidal behavior among the elderly. In K. Hawton(Ed.). *The international handbook of suicide and attempted suicide* (pp. 275-288). John Wiley & Sons.
<https://doi.org/10.1002/9780470698976.ch18>
- Hayes, A. F. (2022). *The PROCESS macro for SPSS* (Version 4.2) [Computer software].
<https://www.afhayes.com>
- Heisel, M. J., & Flett, G. L. (2004). Purpose in life, satisfaction with life, and suicide ideation in a clinical samp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6(2), 127-135.
<https://doi.org/10.1023/B:JOBA.0000013660.22413.e0>
- Heisel, M. J., & Flett, G. L. (2016). Does recognition of meaning in life confer resiliency to suicide ideation among community-residing older adults?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The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4(6), 455-466.
<https://doi.org/10.1016/j.jagp.2015.08.007>
- Henry, K. L., Lovegrove, P. J., Steger, M. F., Chen, P. Y., Cigularov, K. P., & Tomazic, R. G. (2014). The potential role of meaning in lif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ullying victimization and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43(2), 221-232.
<https://doi.org/10.1007/s10964-013-9960-2>
- Herman, J. L. (1992). Complex PTSD: A syndrome in survivors of prolonged and repeated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5(3), 377-391.
<https://doi.org/10.1002/jts.2490050305>
- Jacobson, E. (1971). *Depression: Comparative studies of normal, neurotic and psychotic conditions*.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https://lcn.loc.gov/74162056>
- Jensen, K. P., Bäck-Pettersson, S., & Segesten, K. (2000). The meaning of “not giving in”: Lived experiences among women with breast cancer. *Cancer Nursing*, 23(1), 6-11.
<https://doi.org/10.1097/00002820-200002000-00002>
- Joiner, T. (2005). *Why people die by suicide*. Harvard University Press.
<https://psycnet.apa.org/record/2006-06716-000>
- Kashdan, T. B., Biswas-Diener, R., & King, L. A. (2008). Reconsidering happiness: the costs of distinguishing between hedonics and eudaimonia.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3(4), 219-233.
<https://doi.org/10.1080/17439760802303044>
- Kratovic, L., Smith, L. J., & Vujanovic, A. A. (2020). PTSD symptoms, suicidal ideation,

- and suicide risk in university students: The role of distress tolerance.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3(1), 82-100.
<https://doi.org/10.1080/10926771.2019.1709594>
- Kyron, M. J., Hooke, G. R., Bryan, C. J., & Page, A. C. (2022). Distress tolerance as a moderator of the dynamic associations between interpersonal needs and suicidal though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52, 159-170. <https://doi.org/10.1111/sltb.12814>
- Laghaei, M., Mehrabzadeh Honarmand, M., Jobson, L., Abdollahpour Ranjbar, H., & Habibi Asgarabad, M. (2023). Pathways from childhood trauma to suicidal ideation: Mediating through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BMC Psychiatry*, 23(1), Article e295.
<https://doi.org/10.1186/s12888-023-04699-8>
- LeBouthillier, D. M., McMillan, K. A., Thibodeau, M. A., & Asmundson, G. J. (2015). Types and number of traumas associated with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attempts in PTSD: Findings from a US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8(3), 183-190.
<https://doi.org/10.1002/jts.22010>
- Lew, B., Chistopolskaya, K., Osman, A., Huen, J. M. Y., Talib, M. A., & Leung, A. M. L. (2020). Meaning in life as a protective factor against suicidal tendencies in Chinese University students. *BMC Psychiatry*, 20, Article e73.
<https://doi.org/10.1186/s12888-020-02485-4>
- Leyro, T. M., Bernstein, A., Vujanovic, A. A., McLeish, A. C., & Zvolensky, M. J. (2011). Distress Tolerance Scale: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mong daily cigarette smoker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3, 47-57.
<https://doi.org/10.1007/s10862-010-9197-2>
- Li, J. B., Dou, K., & Liang, Y.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ence of meaning, search for meaning, and subjective well-being: A three-level meta-analysis based on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2, 467-489.
<https://doi.org/10.1007/s10902-020-00230-y>
- Linehan, M. M. (1993). *Cognitive behavioral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Guilford Press.
<https://psycnet.apa.org/record/1993-97864-000>
- Linehan, M. M., Goodstein, J. L., Nielsen, S. L., & Chiles, J. A. (1983). Reasons for staying alive when you are thinking of killing yourself: The Reasons for Living Invent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2), 276-286.
<https://doi.org/10.1037/0022-006X.51.2.276>
- Luxenberg, T., Spinazzola, J., & Van der Kolk, B. A. (2001). Complex trauma and disorders of extreme stress (DESNOS) diagnosis, part one: Assessment. *Directions in Psychiatry*, 21(25), 373-392.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28902824>
- Maercker, A., Cloitre, M., Bachem, R., Schlumpf, Y. R., Khoury, B., Hitchcock, C., & Bohus, M. (2022). Complex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he Lancet*, 400(10345), 60-72.
[https://doi.org/10.1016/S0140-6736\(22\)00821-2](https://doi.org/10.1016/S0140-6736(22)00821-2)
- Mutuyimana, C., & Maercker, A. (2024). How

- meaning in life and vitality are associated with posttrauma outcomes: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Traumatic Stress, 37*(4), 551-562. <https://doi.org/10.1002/jts.23040>
- Nilsen, W., & Conner, K. R. (2002). The association between suicidal ideation and childhood and adult victimization.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11*(3), 49-62. https://doi.org/10.1300/J070v11n03_03
- Paul, E., Tsydes, A., Eidlitz, L., Ernout, C., & Whitlock, J. (2015). Frequency and functions of non-suicidal self-injury: Associations with suicidal thoughts and behaviors. *Psychiatry Research, 223*(3), 276-282. <https://doi.org/10.1016/j.psychres.2014.12.026>
- Robinson, M., Ross, J., Fletcher, S., Burns, C. R., Lagdon, S., & Armour, C. (2021). The mediating role of distress toler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maltreatment and mental health outcomes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6*(15-16), 7249-7273. <https://doi.org/10.1177/0886260519835002>
- Sarchiapone, M., Jausent, I., Roy, A., Carli, V., Guillaume, S., Jollant, F., Malafosse, A., & Courtet, P. (2009). Childhood trauma as a correlative factor of suicidal behavior -via aggression traits. Similar results in an Italian and in a French sample. *European Psychiatry, 24*(1), 57-62. <https://doi.org/10.1016/j.eurpsy.2008.07.005>
- Schulenberg, S. E., Smith, C. V., Drescher, C. F., Buchanan, E. M. (2016). Assessment of meaning in adolescents receiving clinical services in Mississippi following the Deepwater Horizon oil spill: An application of the Purpose in Life Test-Short Form (PIL-SF).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72*(12), 1279-1286. <https://doi.org/10.1002/jclp.22240>
- Simons, J. S., & Gaher, R. M. (2005). The Distress Tolerance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 *Motivation and Emotion, 29*(2), 83-102. <https://doi.org/10.1007/s11031-005-7955-3>
- Sinclair, S., Bryan, C. J., & Bryan, A. O. (2016). Meaning in life as a protective factor for the emergence of suicide ideation that leads to suicide attempts among military personnel and veterans with elevated PTSD and depre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gnitive Therapy, 9*(1), 87-98. <http://doi.org/10.1521/ijct.2016.9.1.87>
- Spikol, E., Robinson, M., McGlinchey, E., Ross, J., & Armour, C. (2022). Exploring complex-PTSD comorbidity in trauma-exposed Northern Ireland veterans. *European Journal of Psychotraumatology, 13*(1), Article e2046953. <https://doi.org/10.1080/20008198.2022.2046953>
- Steger, M. F. (200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A measure of eudaimonic well-being* (Publication No. 3184975)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ProQuest. <https://www.proquest.com/openview/07b46f227512905f7bdad2bcf56a17f9/1?pq-origsite=gscholar&cbl=18750&diss=y>
- Steger, M. F., Frazier, P., Oishi, S., & Kaler, M. (2006).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Assessing the presence of and search for

- meaning in lif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1), 80-93.
<https://doi.org/10.1037/0022-0167.53.1.80>
- Stein, D. J., Chiu, W. T., Hwang I., Kessler, R. C., Sampson, N., Alonso J., Borges, G., Bromet, E., Bruffaerts, R., Girolamo, G., Florescu, S., Gureje, O., He, Y., Kovess-Masfety, V., Levinson, D., Matschinger, H., Mneimneh, Z., Nakamura, Y., Ormel, J., ... Nock, M. K. (2010). Cross-national analysis of the associations between traumatic events and suicidal behavior: findings from the WHO World Mental Health Surveys. *PloS one*, 5(5), Article e10574.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010574>
- Su, W. M., & Stone, L. (2020). Adult survivors of childhood trauma: Complex trauma, complex needs. *Australian Journal of General Practice*, 49(7), 423-430.
<https://search.informit.org/doi/10.3316/informit.305655279145965>
- Szanto, K., Gildengers, A., Mulsant, B. H., Brown, G., Alexopoulos, G. S., & Reynolds, C. F. 3rd (2002). Identification of suicidal ideation and prevention of suicidal behaviour in the elderly. *Drugs Aging*, 19(1), 11-24.
<https://doi.org/10.2165/00002512-200219010-00002>
- Tan, L., Chen, J., Xia, T., & Hu, J. (2018). Predictors of suicidal ideation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Roles of mental health status and meaning in life. *Child & Youth Care Forum*, 47(2), 219-231.
<https://doi.org/10.1007/s10566-017-9427-9>
- Tolin, D. F., & Foa, E. B. (2008). Sex differences in trauma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 quantitative review of 25 years of research.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3(1), 37-85.
<https://doi.org/10.1037/1942-9681.S.1.37>
- Van der Kolk, B. A., Pelcovitz, D., Roth, S., Mandel, F., McFarlane, A., & Herman, J. L. (1996). Dissociation, affect dysregulation, and somatization: The complexity of adaptation of trauma.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3(7 Suppl), 83-93.
<https://somaticexperiencing.dk/wp-content/uploads/2017/02/Dissociation-Affect-Somatization-van-der-Kolk-et-al.pdf>
- Van der Kolk, B. A., Roth, S., Pelcovitz, D., Sunday, S., & Spinazzola, J. (2005). Disorders of extreme stress: The empirical foundation of a complex adaptation to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8(5), 389-399.
<https://doi.org/10.1002/jts.20047>
- Vujanovic, A. A., Bakhshaie, J., Martin, C., Reddy, M. K., Anestis, M. D. (2017). Posttraumatic stress and distress tolerance: Associations with suicidality in acute-care psychiatric inpatient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205(7), 531-541.
<http://doi.org/10.1097/NMD.0000000000000690>
- Wang, M. C., Lightsey, O. R., Pietruszka, T., Uruk, A. C., & Wells, A. G. (2007). Purpose in life and reasons for living as medi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coping, and suicidal behavior.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2(3), 195-204.
<https://doi.org/10.1080/17439760701228920>
- Yang, B., & Clum, G. A. (2000). Childhood stress

- leads to later suicidality via its effect on cognitive functioning.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3), 183-198.
<https://doi.org/10.1111/j.1943-278X.2000.tb00985.x>
- Yıldız, M., Orak, U., & Aydoğdu, R. (2023). Enduring effects of early life traumas on adult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Child & Adolescent Trauma*, 1(2), 297-307.
<https://doi.org/10.1007/s40653-022-00482-1>
- Zhong, J., Huang, X., Wang, X., & Xu, M. (2023). The mediating effect of distress toler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suicide risk in patients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 *BMC Psychiatry*, 23, Article e118.
<https://doi.org/10.1186/s12888-023-04600-7>
- 원고접수일 : 2024. 08. 20.
수정원고접수일 : 2025. 02. 28.
게재확정일 : 2025. 03. 04.

Influence of Complex Trauma Experiences on Suicidal Ideation: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Distress Tolerance and Meaning in Life*

Hyesook Seok¹⁾

Soo Jin Lee^{2)†}

¹⁾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sung University, M.A.

²⁾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su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This study examined whether low-distress tolerance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lex trauma and suicidal ideation in mentally vulnerable adults, and whether meaning in life moderates this effect. A self-report survey was administered to 251 adults recruited through mental health welfare institutions and centers to assess experiences of complex trauma (CT), suicidal ideation (SI), distress tolerance (DT), and meaning in life (ML). The results are discussed below. First, gender differences were identified in the scores of CT, SI, and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diagnosis. Therefore gender, age, and diagnosis status were controlled for in subsequent analyses. Second, partial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CT, low DT, and SI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each other. In contrast, ML was significant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CT and SI. Third, moderated mediation analysis demonstrated that low DT mediated the effect of CT on SI, and that ML moderated this relationship by interacting with distress tolerance to influence suicidal ide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nhancing the meaning in life can be an effective intervention for diminishing suicidal ideation.

Keywords : complex trauma experiences, suicidal ideation, distress tolerance, meaning in life

* This paper is a revision and supplementation of the post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2024 under the title 'Influence of Traumatic Experiences on Suicide through Meaning in Life and Distress Tolerance.'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data provided by Ju Young Jin (M.A. in Psychology, Kyungsung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Soo Jin Lee / 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su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48434) 309, Suyeong-ro, Nam-gu, Busan, Republic of Korea / Tel: 051-663-4328 / E-mail: leesooj@ks.ac.kr